"광주~여수 무료 투어버스 타면 편해요"

하루 2차례 왕복 운행

서울~여수 3시간55분

여수세계박람회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주변 관광지도 눈여겨보는 보는 요령이 필요하다. 사진은 개막식(11일)을 앞두고 10일 밤 열린 빅오쇼 모습.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0일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호명~낙포~월내)와 이순신대교의 임시개통으로 여수세계박람회(12일~8월 12일) 관련 도로 공사가 마무리돼 박람회장 찾아가는 길이 더욱 수월해졌다. 이처럼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자동차를 기준으로 서울~여수는 5시간 30분에서 3시간 55분으로 1시간 35분이 줄었다.

◇박람회 광역 교통망 확충 완료=박람회 광역 교통망으로는 지난해 순천~완주 고속도로가 먼저 개통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여수~순천 구간 자동차전용도로와 목포~광양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이로써 순천에서 여수 가는 시간이 과거 4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됐다.

여수 도심 교통망도 새 단장 됐다. 지난달 여수신·구항을 연결하는 '여수 시민로'가 개통됐으며, 버스터미널~박람회장 간을 잇는 '충민로'와 석창교차로 등이 확장·개통 됐다. 이순신대교로 광양~여수는 10분 거리의 이웃이 됐고, 부산과 대구 등 영남권에서 박람회를 찾아 가는 길도 더욱 편해졌다.

◇기차·항공편도 편해요=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은 단연 열차다. 여수엑스포역에서 내려 3분 정도 걸어가면 박람회장 3문(게이트) 입구가 나온다. 전라선 KTX는 서울 용산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2시간 57분이면 도착한다. 대전역에서는 2시간, 전주역에서는 1시간이 걸린다. 코레일 측은 엑스포 기간 여수행 KTX와 무궁화호, 새마을호 운행을 기존 40회에서 최대 84회로 늘렸다.

항공편도 이용할 만하다. 현재 김포~여수 노선(소요시간 55분)은 주 16편, 제주~여수(소요시간 45분)는 주 4편을 각각 운항하고 있지만 엑스포 기간 운항 횟수가 대폭 늘어난다. 여수공항에서 박람회장까지는 공항버스로 30분 걸린다.

뱃길을 통한 접근성도 다양해진다. 크루즈 등 6선석 규모의 여객부두가 조성되고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 외국적 크루즈 5개사, 한국과 일본 등 국제 여객선 2개사가 취항한다. 제주·남해·통영 등 국내 연안여객선 5개사도 노선을 개설한다. 여수에서 남해까지 육상 거리는 80㎞ 가량돼 승용차로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되지만, 뱃길은 10㎞에 불과해 30~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자가용은 환승주차장 이용해야=굳이 자가용을 이용해야 한다면, 여수시 외곽에 마련한 5개의 환승주차장(5만7000대)에 주차한 뒤 무료 셔틀버스로 박람회장으로 이동하면 된다. 소요시간은 20~3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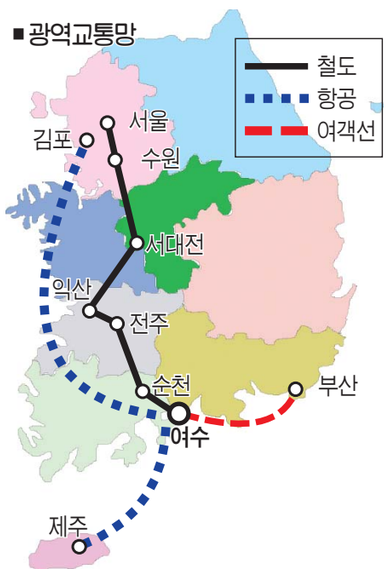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관람객을 위해 박람회장과 인접한 여수 돌산 우두택지지구에 대형 버스 778대를 주차할 수 있는 버스전용 환승주차장도 마련했다. 박람회조직위는 환승 주차장에 셔틀버스 790여대를 배치해 수시로 왕복 운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민은 투어버스가 가장 편해=매일 무료로 운행하는 광주관광 투어버스를 타면 박회장에 바로 도착할 수 있다. 사전 예약 접수를 통해 탈 수 있고, 박람회 기간 매일 운행한다. 매일 오전 9시, 오후 1시 하루 두 차례 총 6대의 대형 버스가 투입된다. 운행코스는 홀리데이인광주호텔↔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광주광역시청(등기국옆)↔광주역↔산수교회(산수오거리)↔여수세계박람회장이다.

광주로 돌아올 땐 박람회장 정문 옆 임시 시외버스승차장에서 탑승하며, 광주출발 오전 1회차 버스 이용자는 오후 5시 차량에, 오후 2회차 이용자는 오후 10시에 각각 출발하는 투어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문의 062-233-3399.

◇여수 관광은 무료 시내버스로=박람회 기간에는 여수 시내버스도 주요 관광지와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무료로 연결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박람회 및 여수시 구경을 하는 데 불편이 없다. 또 여수시는 버스 전용차로제와 교통 신호체계 개선, 여수산단 산업용 차량 시차제 운행, 승용차 안타기 운동 등을 통해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가지 20곳에 승용차 1만6000대를 수용할 임시주차장도 운영되고 있으니, 자가용을 가져온 관람객들은 임시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시내버스나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광역교통망



■엑스포 환승주차장

■ 주변 볼거리·먹을거리

하루 코스 여행지 83곳 '여수 10味' 꼭 맛보세요

조직위 홈피에 안내

별이 떨어져 내린듯 수 많은 섬들이 펼쳐져 있는 남해의 아름다움은 이번 여수세계박회를 만끽하는 즐거움이다.

박람회 조직위는 관람객을 위해 여수를 비롯한 보성, 순천, 경남 남해, 사천 등 남해안 전역을 아우르는 추천여행코스 83선을 홈페이지(www.expo2012.kr)에 추천해주고 있다. 관광숙박 카테고리에는 추천여행코스와 지역 도시별 추천코스, 수학여행코스, 축제, 체험마을 ,생태관광지 등 다양한 여행 정보가 총망라돼있다.

향일암, 거문도, 사도, 금호도 등 여수지역 관광지와 노을이 아름다운 순천 갈대밭, 곡성과 하동까지 이어진 섬진강, 대가야의 역사와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고령 합천까지 인근 관광지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또 박람회 추천여행코스는 ▲역사가 있는 여행지 ▲몸이 건강해지는 여행지 ▲아이가 똑똑해지는 여행지 ▲바다를 즐기는 여행지 ▲초록이 있는 여행지 ▲흥이 있는 여행지 ▲만지고 만들고 다양함이 있는 여행지 등 총 7개 주제로 분류돼 있어 관람객에 맞게 선택할 수 도 있다.

모든 코스는 1일 코스이며, 각 코스를 연계해 2박3일, 3박4일 등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반경 1~2㎞ 이내 주변 관광지, 숙박지, 음식점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소요 비용도 계산할 수 있어 유용하다.

남도의 맛을 즐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여정이다. 여수지역의 정갈한 음식을 곁들이는 것 또한 박람회 여행의 즐거움이다. 여수시는 '여수 10미(味)'를 선정해 관람객의 구미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막걸리 식초를 사용하여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서대회'와 밥도둑으로 불리는 '게장 백반', 청정지역 남해안 해산물을 주원료로 차린 '한정식' '굴 구이' '장어구이와 탕' 등이 있다. 또 '굼풍쉥이(군평서니)구이'와 여름철 보양 음식인 '갯장어 요리', '생선회', '돌산 갓김치', '꽃게탕·찜' 등을 맛볼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알뜰 숙박으로 하루 더 관람하자"

민박·산사·대학 기숙사 등

임시·대체숙박시설 이용을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최근 여수지역 호텔과 모텔 숙박비가 많게는 3배 이상 올랐다.

이번 박람회는 관람객 한 명이 주제관·한국관 등 주요 전시관 8곳 중 예약을 통해서 하루 2개관 밖에는 보지 못한다. 예약을 하지 못한 전시관은 줄을 서서 입장해야 하는데, 관람객이 몰리다 보면 이마저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최근 알뜰한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숙박비를 줄이고, 여수에서 묵으며 하루 더 박람회를 관람하자는 이색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바가지 요금을 받는 숙박업소 대신, 저렴한 숙박시설을 알아보고 절약된 경비로 박람회 관람을 하루 더 하자는 것이다.

알뜰 관람객들은 여수시 등이 마련한 민박 등 임시·대체숙박시설을 알아보는 것도 요령이다. 또 인근 산사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하루 1000명이 잠을 잘 수 있고, 교회와 마을회관 57곳에서도 5000명이 쉴 수 있다. 한옥단지와 캠핑파크, 전남대·순천대 기숙사 등도 틈새 숙소다. 캠핑을 할 경우에서 식대가 절약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조직위와 여수시 홈페이지는 이들 틈새 숙소에 대한 정보와 위치, 가격 등이 상세히 나와있다. 사전에 계획을 잘 짠다면, 1박2일 박람회 경비로도 충분히 2박3일을 머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예약이 늦어 숙박업소를 전혀 잡지 못한 젊은 관람객들은 최악의 경우, 찜질방 이용도 권유할 만하다.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는 차라리 저렴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면서 느긋하게 박람회를 관람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직위와 여수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는 박람회 주변 찜질방과 24시간 운영되는 목욕탕의 정보가 상세히 나와있다. 가격과 연락처, 수용인원 등 정보가 다양하고 이들 업소를 이용해본 여수 시민들의 평가 등도 곁들여져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눈 높이를 조금만 낮춘다면 한밤중 집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수고로움 대신, 여수 밤바다를 마음껏 즐기고 박람회를 하루 더 구경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다양한 정보를 통해 촘촘하게 여수 일정을 짜야 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성공을 기원합니다